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요구 분석\*

김기룡\*\*

공주대학교

나경은\*\*\*

중부대학교

---

### 《요약》

---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 3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살펴본 결과, 직업생활과 독립생활의 비율이 전체의 71.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향후 개설할 필요가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직업능력향상교육 및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및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만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알아봄으로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부모

---

\* 이 논문은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지원하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수행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BK21플러스사업팀 연구교수 (iles7@hanmail.net)

\*\*\* 교신저자 (keunna@joongbu.ac.kr)

## 1. 서론

헌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1982년 12월 31일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1999년 8월 31일 전부개정(법률 제6003호)을 통하여 평생교육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법은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평생교육법 제2조1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교육법이 제정된 1980년대 초반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에도 평생교육은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 머물렀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 것은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고등교육 강화와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제33조)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제34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힘입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왔지만, 대부분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머물고 있으며, 정신지체 및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행히 교육부는 2012년도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왔고, 최근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민간의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직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적응기술 및 자립생활 기술 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등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같이 체계성, 통일성, 보편성 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보다 교육시설의 편의에 의해 교육이 제공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단편적이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두영, 김호연, 박원희, 2014; 강성구 외, 2014). 또한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그를 잘 알고 있는 부모 등 보호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알아본 연구에 기초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기존의 평생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윤점룡 외(2010)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모형을 제안하였고, 이성하(2012)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홍승희(2011)는 발달장애성인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생활실태와 독립생활을 위한 평생교육의 요구를 조사하고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평생교육 운영 모형이 새롭게 제안되고 있다. 대학(김두영, 김주영, 2015), 직업(강동선, 신진숙, 2015), 마을공동체(신화성, 2015)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모형이 제안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거나(이승현, 2014),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요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등(백종남, 2015),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특성과 요구를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종사자 또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왔으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발달장애는 인지수준, 표현수준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iss, 1988). 인지적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측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보고식 평가보다는 전문가 또는 그 부모가 직접 관찰하고 평정하는 방법이 적절할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가장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가 어떠한 특성과 요구를 지니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표현할 수 있는 옹호자이면서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특성과 요구를 대신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 또는 특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그 요구를 파악하였으며, 이승현(2014) 및 홍승희(2011)의 연구만이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승현(2014)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자립생활, 직업생활, 여가생활 등 발달장애인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만으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주로 어떠한 영역 또는 내용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일반화시키기 어렵고, 발달장애자녀의 성, 연령, 장애유형 또는 장애정도(장애등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어렵다.

홍승희(2011)의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 120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바 있으나, 특정 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가 인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요구가 자녀의 성,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고,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방법

### 1. 대상

이 연구는 전국 규모의 발달장애인 부모 단체의 협조를 받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뇌병변장애) 성인(18세 이상)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500명 중 358명이 응답하였는데(71.6%), 그 중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 14명과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는 41명을 제외한 303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별, 연령, 거주지 및 사회·경제적 수준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별, 연령, 거주지 및 사회·경제적 수준

성별	남		여					
	19(6.3)		284(93.7)					
연령	40대		50대		60대 이상			
	155(52.9)		129(44.0)		9(3.1)			
거주지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청	
	63(20.8)		128(42.2)		39(12.9)		73(24.1)	
사회·경제적 수준	상		중		하			
	37(12.2)		137(45.2)		129(42.6)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부모의 발달장애자녀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발달장애자녀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성별	남		여			
	218(71.9)		85(28.1)			
연령	20세 미만		25세 미만		25세 이상	
	52(17.2)		196(64.7)		55(18.2)	
장애 유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199(65.4)		75(24.8)		29(9.6)	
장애 등급	1급		2급		3급	
	170(56.1)		99(32.7)		34(11.2)	

## 2.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발달장애인 부모 요구 조사지」는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과 ② 향후 개설될 필요가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으로 나뉜다. 이 조사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표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 문항에 관한 연구(김두영, 2013), 발달장애인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전환프로그램 모형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이성하, 2012),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이용, 경험,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한 선행연구(곽지혜, 2011; 김성수, 2009; 노종재; 2007; 박성숙, 2005; 박은주, 2005; 최승규, 2010; 한명주, 2013; 홍승희, 2011)에서 사용한 조사지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조사지의 문항들을 종합, 정리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맞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일차적으로 조사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조사지 초안에 대해 특수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명과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1명의 검토를 받았다. 검토 결과 조사지 초안 중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이용, 경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사항이 이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제외하였고,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영역 및 평생교육 유형을 중심으로 조사지의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특수교육 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쳐 21개 문항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요구 조사지」를 확정하였다.

## 3. 실시 절차

이 연구에서는 전화 조사(174명), 방문 조사(88명) 및 온라인 조사(45명)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화조사는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은 면접원 5명이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14년 2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방문 조사는 그 일정을 지역별 장애인부모 단체의 총회, 기념식 등의 행사 맞추어 정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한 발달장애성인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4년 2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장애인부모 단체가 보유한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하여 각 회원들에게 조사 참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참여 의사를 나타낸 45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구글의 서베이 시스템(Google survey system)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전화 조사, 방문 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코딩 절차를 거쳐 각 문항별 빈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변인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 III. 결 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과 ② 향후 개설될 필요가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발달장애성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성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대영역과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전반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성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

항목	n(%)
독립생활	107(35.3)
지역사회 생활	50(16.5)
기능적 학업	2(0.7)
직업생활	109(36.0)
지원서비스	35(11.6)
계	303(100.0)

<표 III-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성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으로 직업생활(36.0%)과 독립생활(35.3%)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적 학업(0.7%)에 대한 요구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변인별 요구 비교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발달장애자녀의 성, 연령대,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성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성별 비교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성별 비교<sup>4)</sup>

구분	독립생활	지역사회 생활	기능적 학업	직업생활	지원서비스	n(%)
남	78(35.8)	32(14.7)	1(0.5)	81(37.2)	26(11.9)	218(100.0)
여	29(34.1)	18(21.2)	1(1.2)	28(32.9)	9(10.6)	85(100.0)
계	107(35.3)	50(16.5)	2(0.7)	109(36.0)	35(11.6)	303(100.0)

$$\chi^2 = 2.013, p > .05$$

<표 III-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발달장애성인 남성은 직업생활(37.2%)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발달장애성인 여성은 독립생활(34.1%)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환 요구 영역에 대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독립생활과 직업생활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4) 지역사회 전환 요구 평생교육 영역 중 기능적 학업의 경우 응답자 수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를 포함할 경우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 발생하여 카이제곱검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 이에 따라 기능적 학업을 응답한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값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음. 표 III-3, 표 III-4 및 표 III-5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음.

(2) 연령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연령별 비교

구분	독립생활	지역사회 생활	기능적 학업	직업생활	지원서비스	n(%)
20세 미만	18(34.6)	7(13.5)	1(1.9)	22(42.3)	4(7.7)	52(100.0)
20세 이상 25세 미만	75(38.3)	30(15.3)	1(0.5)	68(34.7)	22(11.2)	196(100.0)
25세 이상	14(25.5)	13(23.6)	0(0.0)	19(34.5)	9(16.4)	55(100.0)
계	107(35.3)	50(16.5)	2(0.7)	109(36.0)	35(11.6)	303(100.0)

$$\chi^2 = 6.633, p > .05$$

<표 III-3>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세 미만 및 25세 이상 발달장애성인은 직업생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각각 42.3%, 34.5%), 20세 이상 25세 미만 발달장애성인은 독립생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38.3%). 또한 지역사회 전환 요구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생활과 독립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5세 이상의 경우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요구도 독립생활에 대한 요구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유형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장애유형별 비교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장애유형별 비교

구분	독립생활	지역사회 생활	기능적 학업	직업생활	지원서비스	n(%)
지적장애	76(38.2)	31(15.6)	2(1.0)	75(37.7)	15(7.5)	199(100.0)
자폐성장애	22(29.3)	14(18.7)	0(0.0)	28(37.3)	11(14.7)	75(100.0)
뇌병변장애	9(31.0)	5(17.2)	0(0.0)	6(20.7)	9(31.0)	29(100.0)
계	107(35.3)	50(16.5)	2(0.7)	109(36.0)	35(11.6)	303(100.0)

$$\chi^2 = 16.640, p < .05$$

<표 III-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인은 독립생활(38.2%), 자폐성 장애인은 직업생활(37.3%), 뇌병변장애인은 지원서비스(31.0%) 및 독립생활(31.0)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장애유형별 전환 요구 영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16.640, p < .05$ ).

(4) 장애등급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장애등급별 비교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장애등급별 비교

구분	독립생활	지역사회 생활	기능적 학업	직업생활	지원서비스	n(%)
1급	70(41.2)	33(19.4)	0(0.0)	43(25.3)	24(14.1)	170(100.0)
2급	32(32.3)	11(11.1)	0(0.0)	47(47.5)	9(9.1)	99(100.0)
3급	5(14.7)	6(17.6)	2(5.9)	19(55.9)	2(5.9)	34(100.0)
계	107(35.5)	50(16.6)	2(0.7)	109(36.0)	35(11.6)	303(100.0)

$\chi^2 = 24.126, p < .001$

<표 III-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급 발달장애인은 독립생활(41.2%)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급과 3급 발달장애인은 직업생활(각각 47.5%, 55.9%)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등급별 교육적 요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24.648, p < .001$ ).

3) 평생교육 영역별 하위영역에 대한 요구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영역, 즉 독립생활, 지역사회 생활, 기능적 학업, 직업생활 및 지원서비스의 각 하위영역별 요구 비율을 알아본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32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4호)

<표 III-6>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영역별 하위영역에 대한 요구(중복 응답)

평생교육 영역	하위 영역	n(%)	하위 영역	n(%)
독립생활 (n = 107)	개인위생	22(20.6)	자기결정	37(34.6)
	의생활	9(8.4)	금전관리	25(23.4)
	건강	15(14.0)	성교육	12(11.2)
	안전	21(19.6)	의사소통	42(39.3)
	일상생활훈련	83(77.6)		
지역사회생활 (n = 50)	대인관계	23(46.0)	이동	14(28.0)
	지역사회시설 이용	34(68.0)		
기능적 학업 (n = 2)	생활수학	2(100.0)	말하기/듣기	1(50.0)
	진로교육	2(100.0)	체육과 안전	1(50.0)
직업생활 (n = 109)	직업전교육(직업준비)	30(27.5)	유급일하기	29(26.6)
	직업생활태도(예절)	14(12.8)	외부고용기관 인턴십	10(9.2)
	직무관련기능	21(19.3)	고용확보	33(30.3)
	직업현장견학	22(20.2)	고용유지	38(34.9)
	지역사회에서 일하기	42(38.5)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	32(29.4)
지원서비스 (n = 35)	행동중재	8(22.9)	부모 및 가족지원	12(34.3)
	활동보조지원	25(71.4)	교통(이동)지원	8(22.9)
	공공복지 및 소득지원	21(60.0)	기관간의 협력	5(14.3)
	의료지원	11(31.4)		

<표 III-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독립생활 영역의 하위영역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 일상생활훈련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가장 높고(77.6%),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39.3%), 자기결정(3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교육(11.2%)과 의생활(8.4%)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생활의 하위영역에 대한 요구는 지역사회시설 이용(68.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대인관계(46.0%), 이동(28.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기능적 학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람은 총 6명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위요인별 요구 비율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생활의 하위영역에 대한 요구는 지역사회에서 일하기(38.5%), 고용유지(34.9%), 고용확보(30.3%),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29.4%), 직업전교육(27.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생활태도(예절)(12.8%)와 외부고용기관 인턴십(9.2%)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원서비스의 하위영역에 대한 요구는 활동보조지원(71.4%)과 공공복지 및 소득지원(60.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행동중재와 교통(이동)지원(각각 22.9%) 및 기관간의 협력(14.3%)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2. 발달장애인 부모가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발달장애인 부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하위영역 및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전반적 요구

발달장애인 부모가 인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한 전반적 요구를 알아본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표 III-7> 발달장애인 부모가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	n(%)
인문교양	17(5.6)
직업능력향상	129(42.6)
시민참여	4(1.3)
기초문해	130(42.9)
문화예술	21(6.9)
학력보완	2(0.7)
계	303(100.0)

<표 III-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초문해 및 직업능력향상 유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각각 42.9, 42.6%), 문화예술(6.9%), 인문교양(5.6%)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시민참여(1.3%)과 학력보완(0.7%)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2) 변인별 요구 비교

발달장애인 부모가 인식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요구를 성, 연령대,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성

발달장애인 부모가 인식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요구를 성에 따라 알아본 결과는 <표 III-8>과 같다.

<표 III-8> 발달장애인 부모가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의 성별 비교<sup>5)</sup>

구분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n(%)
남	13(6.0)	93(43.1)	2(0.9)	95(43.6)	14(6.4)	1(0.5)	218(100.0)
여	4(4.7)	36(42.4)	2(2.4)	35(41.2)	7(8.2)	1(1.2)	85(100.0)
계	17(5.6)	129(42.6)	4(1.3)	130(42.9)	21(6.9)	2(0.7)	303(100.0)

$\chi^2 = .495, p > .05$

<표 III-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녀 모두 직업능력향상교육(각각 43.1%, 42.4%)과 기초문해교육(각각 43.6%, 41.2%)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순으로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연령대

발달장애인 부모가 인식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요구를 연령대에 따라 알아본 결과는 <표 III-9>와 같다.

<표 III-9> 발달장애인 부모가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의 연령대별 비교

구분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n(%)
20세 미만	4(7.7)	27(51.9)	1(1.9)	18(34.6)	2(3.8)	0(0.0)	52(100.0)
20세 이상 25세 미만	12(6.1)	80(40.8)	2(1.0)	86(43.9)	14(7.1)	2(1.0)	196(100.0)
25세 이상	1(1.8)	22(40.0)	1(1.8)	26(47.3)	5(9.1)	0(0.0)	55(100.0)
계	17(5.6)	128(42.6)	4(1.3)	130(42.9)	21(6.9)	2(0.7)	303(100.0)

$\chi^2 = 6.147, p > .05$

<표 III-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세 미만 발달장애성인은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51.9%), 20세 이상 25세 미만 및 25세 이상 발달장애성인은 기초문해 프로그램(각각 43.9%, 47.3%)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문화예술 또는 인문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낮게 나타났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 중 시민참여교육 및 학력보완교육의 경우 응답자 수가 각각 4명, 2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를 포함할 경우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 발생하여 카이제곱 검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 이에 따라 시민참여교육 및 학력보완교육을 응답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값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음. 표 III-9, 표 III-10 및 표 III-11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음.

(3) 장애유형

발달장애인 부모가 인식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요구를 장애유형에 따라 알아본 결과는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발달장애인 부모가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의 장애유형별 비교

구분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n(%)
지적장애	7(3.5)	86(43.2)	1(0.5)	93(46.7)	11(5.5)	1(0.5)	199(100.0)
자폐성장애	5(6.7)	31(41.3)	2(2.7)	28(37.3)	9(12.0)	0(0.0)	75(100.0)
뇌병변장애	5(17.2)	12(41.4)	1(3.4)	9(31.0)	1(3.4)	1(3.4)	29(100.0)
계	17(5.6)	129(42.6)	4(1.3)	130(42.9)	21(6.9)	2(0.7)	303(100.0)

$$\chi^2 = 19.371, p < .01$$

<표 III-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직업능력향상(각각 43.2%, 41.3%)과 기초문해 프로그램(각각 46.7%, 37.3%)에 대한 요구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41.4%)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고, 기초문해(31.0%), 인문교양(17.2%) 프로그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인문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장애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장애등급

발달장애인 부모가 인식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요구를 장애등급에 따라 알아본 결과는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발달장애인 부모가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의 장애등급별 비교

구분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n(%)
1급	12(7.1)	60(35.3)	2(1.2)	86(50.6)	8(4.7)	2(1.2)	170(100.0)
2급	4(4.0)	52(52.5)	1(1.0)	33(33.3)	9(9.1)	0(0.0)	99(100.0)
3급	1(2.9)	17(50.0)	1(2.9)	11(32.4)	4(11.8)	0(0.0)	34(100.0)
계	17(5.6)	129(42.6)	4(1.3)	130(42.9)	21(6.9)	2(0.7)	303(100.0)

$$\chi^2 = 14.005, p < .05$$

<표 III-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1급 발달장애인은 기초문해(50.6%)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급과 3급 발달장애인은 직업능력향상(각각 52.5%, 50.0%)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등급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요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하위 영역 및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하위 영역 및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요구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하위 영역 및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요구

유형	하위 영역	n(%)	하위 프로그램	n(%)	하위 프로그램	n(%)
인문교양 (n = 17)	사회재활	14(82.3)	지체장애인재활	4(23.5)	성인심리재활	9(52.9)
			중도장애인재활	1(5.9)	보조기기활용교육	0(0.0)
	생활소양	3(17.7)	정보화교육	1(5.9)	장애인 성교육	1(5.9)
			생활요리	1(5.9)	역할교육	0(0.0)
	인문학적 교양	0(0.0)	요리교실	0(0.0)	보건교육	0(0.0)
			시낭송	0(0.0)	인문학강좌	0(0.0)
			지역문화탐방	0(0.0)	건강강좌	0(0.0)
			생활과학	0(0.0)		
직업능력 향상 (n = 129)	기초직업교육	55(42.6)	직업의식교육	3(2.3)	직업탐색교육	6(4.7)
			직업적응훈련	44(34.1)	직장예절교육	2(1.6)
	전문직업교육	67(51.9)	직업기능교육	33(25.6)	직무능력향상교육	23(17.8)
			직종훈련교육	12(9.3)	기능대회준비교육	0(0.0)
자격인증	5(3.9)	컴퓨터 관련 자격 취득	2(1.6)	점역교정사 양성	0(0.0)	
		장애인 복지 등 지도자 양성	3(2.3)			
시민참여 (n = 4)	시민의식	3(75.0)	장애인권교육	2(50.0)	성교육	0(0.0)
			성희롱예방교육	1(25.0)	장애인 기자 양성 교육	0(0.0)
	시민역량	1(25.0)	장애인(인권) 활동가 양성	0(0.0)	인권 강사 양성	1(25.0)
			수화통역사 양성	0(0.0)	지역 나눔 활동	0(0.0)
시민활동	0(0.0)	수화 교실	0(0.0)	봉사 동아리 활동	0(0.0)	
		휠체어 지킴이 활동	0(0.0)			
기초문해 (n = 130)	한글문해	2(1.5)	한글교실	1(0.8)	도전문맹	0(0.0)
			문해교실	0(0.0)	책 읽어주기	1(0.8)
	한글생활 문해	0(0.0)	고급 문해반	0(0.0)	한글 작문교실	0(0.0)
			컴퓨터 문해교육반	0(0.0)	한글 응용교육	0(0.0)
기초자립생활	128(98.5)	스스로 학교	6(4.6)	자립생활교육	73(56.2)	
		지역사회 적응교육	31(23.8)	신변자립교육	18(13.8)	
문화예술 (n = 21)	여가스포츠	13(61.9)	레저스포츠 강좌	3(14.3)	스포츠 예술 활동	2(9.5)
			생활스포츠 강좌	4(19.0)	건강 스포츠 강좌	4(19.0)
	문화예술향유	5(23.8)	노래교실	0(0.0)	생활공예	0(0.0)
			민요교실	0(0.0)	사진교실	2(9.5)
문화예술숙련	3(14.3)	미술활동	3(14.3)	문화예술관람	0(0.0)	
		서예교실	0(0.0)	도자기공예	0(0.0)	
			악기교실	2(9.5)	영상미디어교실	0(0.0)
			중장·합창 교실	1(4.8)		
학력보완 (n = 2)	초등학력보완	1(50.0)	중입 검정고시반	0(0.0)	초등교과연계 강좌	1(50.0)
			초등학력인증 강좌	0(0.0)		
	중등학력보완	0(0.0)	고입 검정고시반	0(0.0)	수능 준비반	0(0.0)
			대입(고졸) 검정고시반	0(0.0)		
고등학력보완	1(50.0)	학점은행제 강좌	1(50.0)	독학사 강좌	0(0.0)	

<표 III-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문교양 유형의 경우 사회재활 영역(82.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생활소양(17.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재활 영역 중에서도 성인심리재활(52.9%)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체장애인재활(23.5%)이 그 뒤를 이었다.

직업능력향상 유형의 경우 전문직업교육 영역(51.9%)과 기초직업교육 영역(42.6%)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기초직업교육 영역의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직업적응훈련(36.4%)이 가장 높았고, 전문직업교육 영역의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직업기능교육(25.6%)과 직무능력향상교육(17.8%)이 전체의 43.4%를 차지하였다. 자격인증 영역에 대한 요구는 3.9%로 낮게 나타났다.

시민참여 유형의 경우 시민의식 영역 3명, 시민역량 영역 1명으로 응답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식 영역의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장애인권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각각 2명,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역량 영역의 경우 인권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문해 유형의 경우, 기초자립생활 영역(98.5%)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자립생활 프로그램(56.2%)과 지역사회 적응교육 프로그램(23.8%)이 전체 하위 프로그램 요구의 82.0%를 차지하였다.

문화예술 유형의 경우, 여가스포츠 영역(61.9%), 문화예술향유 영역(23.8%), 문화예술숙련 영역(14.3%)의 순으로 그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여가스포츠 영역의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생활스포츠와 건강스포츠(각각 19.0%), 레저스포츠(14.3%), 스포츠예술활동(9.5%)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향유 영역의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미술활동(14.3%), 사진교실(9.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예술숙련 영역의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악기교실(9.5%), 중창·합창 교실(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보완 유형의 경우, 하위 영역에 대한 요구는 초등학교학력 보완 영역 1명과 고등학교학력 보완 영역 1명, 총 2명인 것으로 낮게 나타났다.

#### IV. 논 의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 수준 및 발달장애자녀의 성,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

중 주의를 기울일 만한 내용이나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결과에 대해서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직업생활과 독립생활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비율이 전체의 71.3%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주된 평생교육 지원이 직업과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선행연구(강동선, 신진숙, 2015; 윤점룡 외, 2010; 이성봉, 정해동, 2007; 이성하, 2012; 홍승희, 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고,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발달장애성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서는 직업생활과 독립생활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결과,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요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비교 분석은 어렵지만, 이와 같은 연령대별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요구의 차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 내에서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생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점점 더 크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발달장애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이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지속되고 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양육 또는 보호의 책임을 가정이 아닌 사회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결과와도 관련이 있다(백은령 외, 2011). 따라서 발달장애성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욕구가 조사 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장애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결과, 지적장애인은 독립생활과 직업생활, 자폐성장애인은 직업생활, 뇌병변장애인은 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직업생활 및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홍승희, 2011)와 일치한다. 그러나 홍승희(2011) 연구의 경우, 지적장애인은 직업교육을 자폐성장애인은 일상생활기술교육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자폐성장애인이 직업생활 관련 영역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으므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의료적 문제뿐만 아니라 운동기능, 감각기능, 의사소통 기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박은혜, 김정연, 2010),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장애유형별 교육 영역에 대한 요구의 차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 장애유형에 따라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교육과정 영역을 시사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장애등급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결과, 1급 발달장애인은 독립생활, 2급과 3급 발달장애인은 직업생활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증 발달장애인 부모는 독립생활에 관한 프로그램을, 경도 발달장애인 부모는 직업생활에 관한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애 정도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요구 평생교육 영역 중 독립생활의 하위요인에 대한 요구는 일상생활훈련과 의사소통훈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교육과 의생활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 중 일상생활훈련과 의사소통훈련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높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이지만(이성하, 2012; 이승현, 2014), 성교육 프로그램과 의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부모 중 11.5%가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조흥식 외, 2011)를 고려해 볼 때, 자기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성교육을 별도의 항목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 독립생활의 하위 영역으로 알아보았고, 성교육을 일상생활과 의사소통훈련이라는 주요 영역과 함께 선택하도록 조사하였기 때문에, 실제 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일상생활과 의사소통훈련으로 응답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성교육의 경우 독립생활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기보다는 별도의 교육 영역으로 분리하여 그 우선순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모단정 등 의생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요구 평생교육 영역 중 지역사회생활의 하위요인에 대한 요구는 지역사회시설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의미있는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재활치료시설 등과 같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 도구로 사용했던 이성하(2012)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시설의 하위 범주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시설 중

어떠한 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촉진에 유효한 시설인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하였다. 최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 행동증진센터, 여가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시설이 증가한다면 발달장애인 부모의 지역사회시설 이용에 대한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요구 평생교육 영역 중 직업생활의 하위요인에 대한 요구는 지역사회에서 일하기, 고용유지, 고용확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직업전교육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생활태도(예절)와 외부고용기관 인턴십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직업획득과 직업유지가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에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용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직업 획득 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 지원은 이와 같은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차원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향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직업능력향상교육 및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및 학력보완교육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능력향상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강동선, 신진숙, 2015; 김용욱, 우정환, 박종화, 2011). 또한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역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초문해교육프로그램에 지역사회 적응교육, 자립생활교육, 신변자립교육과 같은 기초자립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두영, 박원희(2013)가 개발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표를 사용하였는데, 이 분류표에서는 기초문해에 지역사회적응, 자립생활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있다. 김두영, 박원희(2013)는 현재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체계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문해 영역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초문해는 일상생활에서의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을 포함하는 자립생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조사도구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알아볼 경우, 기초문해라는 개념이 자립생활의 주요 내용을 대표하는데 제한적이므로, 실제 수요가 과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이 개발되고 관련 조사 도구가 제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전체의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장애인의 13.1%(김성희 외, 2011), 25.2%(장미숙, 2014)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조사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 연구의 경우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인 반면, 김성희 외(2011)와 장미숙(2014)의 연구는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다. 부모의 경우 자녀가 하루라도 빨리 직업을 얻고 자립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을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가 요구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문교양교육, 학력보완교육,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는 이미 학교교육을 마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학력보완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발달장애인 부모가 이와 같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평생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욕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절반 이상이 문화예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고, 시민참여교육이나 인문교양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강성구 외, 2014; 김두영 외, 2014; 박해룡 외, 2014). 이점을 고려해 볼 때, 발달장애인 부모가 보다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관련 기관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향후 개설할 필요가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변인별 차이에 대해 비교한 결과 성과 연령대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른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기초문해와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뇌병변장애인은 직업능력향상과 기초문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직업능력향상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나, 뇌병변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문화예술 교육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김성희 외, 2011)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해보면, 지적장애인의 경우 당사자와 부모의 요구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자폐성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당사자와 부모의 요구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애유형에 따라 당사자와 부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적·행동적 문제로 인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지만, 최소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발달장애인에게는 직접 설문조사를 하였더라면 이 연구 결과의 일반화 폭이 더 넓어졌을 것이다. 추후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이 연구는 전국적 수준에서 표집된 발달장애성인 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알아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선행연구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도, 평생교육 범주도 모두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은 발달장애성인을 둔 부모로, 조사내용은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한정함으로써 좁고 깊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구안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동선, 신진숙 (2015). 성인발달장애인 직업중심 평생교육 모델에 관한 기초 연구. **발달장애 연구**, 19(1), 1-22.
- 강성구, 강종구, 김두영, 김라경, 김영석, 오유정, 정소영 (2014).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시민참여교육 편**. 평택: 한국복지대학교.
- 곽지혜 (2011). **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두영, 김주영 (2015).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형 개발. **장애인고등교육연구**, 1(1), 85-103.
- 김두영 (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두영, 김호연, 박원희 (2014).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분석. **특수교육학 연구**, 48(4), 359-383.
- 김두영, 박원희 (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8(2), 245-271.
- 김성수 (2009).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이용자의 평생교육 연구: 울산광역시 장애인보호작업 시설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 김성희, 변용찬, 손창균, 이연희, 이민경, 이송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욱, 우정환, 박종화 (201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 중심의 평생교육 모델 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 **지체·중복부자유아연구**, 54(1), 237-256.
- 노중재 (2007).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성숙 (2005).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은주 (2005). **장애인 평생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박은혜, 김정연 (2010). **지체장애 학생 교육**.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 박해룡, 강성구, 김석진, 김선미, 김종무, 김태준, 노선옥, 신동인, 안상권, 안수경, 우이구, 이영숙, 이정현 (2014).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백은령, 김기룡, 유영준, 이명희, 최복천 (2011). **장애인 가족지원**. 서울: 양서원.
- 백종남 (2015). 발달장애학생의 평생교육 요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및 그 영향력 검증. **장애인고등교육연구**, 1(1), 185-202.
- 신화성 (2015). **마을공동체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와 특성**.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윤점룡, 양종국, 원성욱, 강병호, 정인숙 (2010).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 연구. **특수교육연구**, 17(2), 3-141.
- 이성봉, 정해동 (2007). 충남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요구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0(3), 23-39.
- 이성하 (2012). **발달장애인의 중등교육이후 전환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승현 (2014). **발달장애인 부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미숙 (2014).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욕구분석**.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 조흥식, 박희찬, 이준영, 강상경, 김진우, 김용득, 윤민석 (2011).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최승규 (2010).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광주대학교 대학원.
- 한명주 (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승희 (2011). **성인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요구 조사**. 석사학위 논문.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 Reiss, S. (1988). *Reiss screen*. Chicago, IL: International diagnostic systems.

## Analysis of the parents' need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im, Ki Ryo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Na, Kyong-Eun**

Joongbu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arents' need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303 parents that hav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ver 18 years old.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needs of job-living and independent living were 71.3% of lifelong education sectors needed to take a transition into community. Second, types of improvement vocational education and basic literacy education were the highest for the parents had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needs of humanities liberal education, culture-arts education, civil participation education, and academic ability of supplementation education were low.

It was meaningful that this study was provided basic data needed to implement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 Words :**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논문 접수: 2015. 11. 05 심사 시작: 2015. 11. 10 게재 확정: 2015. 12. 21